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15장 다같이

1.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2.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3.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소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마가복음 7:31-37 인도자

설 교 “열려라”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1. 헌신과 열심히 하나님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2. 교회의 전도의 불꽃이 더 타오르게 하시고, 교회와 한 몸 이루게 하옵소서.
3. 추석 연휴 동안 오고가는 길 안전케 하시고, 가족 간에 화목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열려라

마가복음 7:31-37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지중해를 따라 북쪽 36km에 위치한 시돈에 가시고, 갈릴리 남동쪽인 데가볼리에서 사역하시고,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오시는 긴 여행의 행로를 기록하고 있다. 연이동 거리 5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지역을 다니셨다. 어떤 학자들은 이 여정을 8개월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하셨으며, 제자들과 더욱 가까이 계시면서 개별적으로 집중 훈련하고, 가르치셨을 것이다. ▶갈릴리 호수가에 예수님께서 당도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나아와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이들도 벳새다에서 맹인을 데리고 나아와 “손대시기”를 구한 사람들처럼 귀한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맞으시고 무리를 떠나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예수님은 무리와 그를 잠시 단절시키시고, 예수님과 조용하고도 깊은 일대일 접촉을 하신다. 이번 기사는 치료 과정이 가장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예수님은 무리가 요구한 안수보다 더욱 복잡하게 치료 과정을 진행하셨다. 침을 뱉으시고, 예수님의 두 손 손가락을 장애가 있는 사람의 양 귀와 혀에 손을 대시면서, ‘에바다’ 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본 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장애인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에 접촉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공허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 하실 때 귀가 열려서 듣게 되고, 입이 열려서 말하게 되었다. 귀가 열려야 입이 열린다. ▶이사야는 시각, 청각, 언어 장애를 가진 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통하여 치료될 것을 예언했었다. 새롭게 듣고 말하고 보게 되면 새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새 창조다. ‘에바다’ 말씀하실 때, 새사람이 되어 보시기에 좋았다. 예수님의 이적은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드러나는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 나라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적은 하나님 나라와 다스림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변화의 역사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에바다”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이 들려야 기도도 되고, 찬송도 하고, 전도도 한다. 그런데 죄가 귀를 막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다.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보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며, 듣는 것이 제대로 듣는 것이 아니며, 말하는 것이 제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다 맹인이라고, 귀머거리요, 병어리라고 하셨다. ▶에바다의 이적은 또한 소통의 이적이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은 언어의 혼잡, 불통의 역사이다. 같은 말을 하는데도 서로 알아듣지 못한다. 오늘날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듣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세대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한다. 취사선택하려는 의도에서 그렇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은 ‘에바다’ 열리는 역사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통하게 되는 것이다. 불신앙의 상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귀가 없는 것이요, 주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고백이 없는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려야 한다. 새로운 인생이 열려야 한다. ▶나라 간에도, 정당 간에도, 이웃 간에도 막혔던 것이 열려야 한다. 그러려면 잘 들어야 한다. 하나님과도 소통하시고, 나와도 소통하시고, 가족들과도 소통하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될 때 진학의 문도, 결혼의 문도, 취업의 문도, 물질의 문도, 인간관계의 문도 열리기를 축원한다.